

관계성과 우울을 매개로 한 초기 청소년의 성역할갈등과 공격성의 관계*

하문선(河文善)**

김지현(金知賢)***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초기 남녀 청소년의 성역할갈등과 관계성, 우울, 공격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초기 남녀 청소년의 성역할갈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관계성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남자청소년은 남성성역할갈등이 높을수록 관계성이 낮아지고 우울 수준이 높아져 결국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성역할갈등이 관계성 욕구 충족과 상관없이 우울을 가져오며 그 결과 공격성이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초기 청소년 공격성 문제의 예방 및 개입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노력, 우울을 경험하게 하는 성역할갈등 요소의 확인 및 남녀별 차별화된 개입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초기청소년, 성역할갈등, 공격성, 관계성, 우울

* 본 연구는 교신저자의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임.

** 교신저자.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

***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일반적으로 '사춘기'라 불리우는 혼란의 시기로 신체적·정서적·행동적 변화를 동반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대인관계 문제는 물론 다양한 정서 및 행동문제를 야기한다(Roeser & Eccles, 1998). 청소년 문제들 중 최근에는 학교폭력, 비행, 자살 등의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통계청, 201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점점 초등학교 고학년으로까지 확대되어 저연령화되고 일상화·과격화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러한 청소년 폭력 및 비행과 관련이 있는 심리적 특성 중 대표적인 것이 공격성이다(Dryfoos, 1989). 다수의 연구에서 공격성은 아동기에 시작되어 청소년 중기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통적으로 약 11세 ~ 14세에 절정을 이룬다고 보고되어(김동기, 홍세희, 2007; 서미정, 2009; Bongers, Koot, van der Ende, & Verhulst, 2004; Karriker-Jaffe, Foshee, Ennett, & Suchindran, 2008),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단계에서의 공격성에 대한 예방과 개입의 중요성을 나타내었다.

공격성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를 목표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Aronson, 1980; Berkowitz, 1993).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공격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Maccoby & Jacklin, 1974), 70년대 이후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항상 더 공격적이라는 가설이 경험적으로 지지되지 않고 있다(Frodi, Macaulay, & Thome, 1977). 또한, 90년대 이후 증가된 반응적(Reactive) 공격성과 주도적(Proactive) 공격성 관련 연구들(Crick & Dodge, 1996)은 공격성의 유형에 따라 적응 양상이나 과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Dodge, 1991; Pulkkinen, 1996), 국내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들이 많지 않으며,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강지훈, 2005; 오인수, 2010; 윤리라, 1998). 따라서 초기 청소년기 공격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분석하여 청소년 공격성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성과 관련된 청소년기 공격성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생물학적 성(sex) 자체 보다 사회화된 성역할(gender role) 특히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많은 연구들은 생물학적 성과 상관없이 사회화된 성역할에 따라 공격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김영희, 1990; 최해림, 2005; Kopper & Epperson, 1996). 구체적으로 남성성을 수용한 남자 청소년, 여성성을 수용한 여자청소년이 비행, 공격성 또는 공격적 태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성식, 전신현, 2001; 정익중, 2005; Bowker, 1998). 반면, 오히려 사회화된

성역할을 수용한 청소년이 비행, 공격성을 자제한다는(Hagan & Simpson, 1987; Macreary, Newcomb, & Sadsva, 1999) 상반된 결과도 나타났다. 이러한 비밀관된 연구들은 성역할의 긍정적 측면(예. 남성성의 목표·성취지향성, 독립성 등, 여성성의 친절, 온화 등)과 공격성, 비행 등의 부정적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기 때문이다. 성역할과 관련된 구인들은 다양한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변인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주로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으로 보고되고 있다(Spence, 1993; Pleck, 1995). 따라서 공격성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성역할갈등(Gender Role Conflict; GRC)과 같은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인 성역할갈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성역할갈등은 사회에서 내면화된 성역할이 자신과 타인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되는데(O'Neil, 1981), 그 발생하는 맥락적 상황은 생애 주기에서 발달적 과업의 갈등에 직면했거나 성역할의 변화를 경험할 때 등으로 제시되었다(O'Neil, 2008). 이러한 성역할갈등이 발생하는 맥락적 상황은 성역할정체감의 형성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최희철, 정민선, 장지영, 김지현, 2011)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Watts와 Borders(2005)는 성역할갈등이 청소년기에 발달하며, 청소년기의 급격한 변화가 가져오는 긴장과 갈등에 더하여 성역할갈등이 우울 등의 부적응 문제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여, 청소년의 부적응적 위기를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특히, 연구자들은 성역할갈등이 높을수록 공격적 특성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Fagot, Rodgers, & Leinbach, 2000; Mahalik et al., 2003; O'Neil, 2008). 성역할갈등이 높은 남성들은 감정의 표현을 제한하고 억압하는데(O'Neil, 1981) 이렇게 억압된 감정은 심리적 불만족을 가져오며 외적으로 표출되어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성역할갈등이 높은 남성청소년 역시 사회에서 부과한 남성다움 즉, 힘과 경쟁을 추구하며 강하고 용기 있어 보여야 한다는 기대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나약해보이지 않기 위해 비행과 공격 행동을 표출하게 된다(Shover & Norland, 1978). 그러나 성역할갈등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공격성으로 표출되는지 구체적인 맥락적 과정을 밝힌 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성역할갈등이 공격성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매개 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Heppner & Heppner, 2008). 매개변인에 대한 연구는 성역할갈등으로 인한 부적응에 대한 개입 및 상담의 실제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 제안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최근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환경의 통제에 의한 기본심리욕구의 좌절이 심리적 불행과 자기패배 행동을 가져온다고 보았다(Deci & Ryan, 2000). 기본심리욕구는 인간은 진화과정에서 생존을 위해 발달시킨 것으로, Deci와 Ryan(2000)은 인간 행동의 동기와 목표가 이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았다. 자율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으로 이루어진 기본심리욕구는 개인의 성장, 발달, 학습을 위한 자연적 동기를 제

공하며 이 욕구들이 충족될 때 건설적인 사회성이 발달하고 주관적 안녕감을 느끼며 학교생활에 적응적이라고 보고되었다. 반면 기본심리욕구가 좌절되면 우울, 위축감, 슬픔, 분노나 적대감, 공격성 등이 표현된다고 하였다(Averill, 1983). 특히 기본심리욕구는 비행이나 공격적 행동과 같은 위험 행동에 개입하는 동기로서도 이해되어지고 있다(Neighbors, Lewis, Fossor, & Grossbard, 2007; Thgersen-Ntoumania, Ntoumanisa, & Nikitarasb, 2010). 즉, 인간은 외적인 사회 환경적 요소들에 의해 내적인 동기 또는 기본심리욕구가 침해받을 때 더 깊은 좌절과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고 위험행동에 개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생의 초기부터 성역할과 관련된 가치와 규준 등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사회 환경의 압력으로 인한 성역할갈등의 발생과정은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설명하는 개인의 내적인 동기를 침해하고 타고난 기본심리욕구를 좌절시켜 결국 비행과 공격적 행동 등의 위험 행동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성역할갈등이 발달하는 청소년기는 사춘기와 다양한 발달과업의 변화 속에서 특유의 생물학적, 심리사회적 욕구에 의해 긴장과 혼란 및 갈등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성역할갈등의 발달 과정이나 발달 과업의 수행 과정 및 성역할정체성 형성과정에서 기본심리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을 경우 혹은, 역기능적 성역할을 내면화한 청소년이 상실과 좌절을 경험할 경우(Kilmartin, 2007), 적응에 대한 탄력성이 감소하고 그 반동으로 비행이나 공격적 행동 등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Neighbors, Vietor와 Knee(2002)는 공격성유발 동기모델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공격성의 유발 동기이며 공격성에 이르는 매개변인으로 기본심리욕구를 제시하였는데, 통제된 환경에서는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며 억압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자기 방어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반응으로 공격성이 유발된다고 설명하여, 사회 환경의 압력에 의한 성역할갈등이 기본심리욕구를 억압하고 그 결과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관련 연구들 역시 관계성이 공격행위 예측의 주요한 요인이며(조운오, 2009), 자율성 만족과 공격성은 부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Moller & Deci, 2010). 또한, 욕구좌절의 인식에 따라 공격행동이 결정되며(Berkowitz, 1978), 외적인 요소들에 의해 내적인 동기가 침해받을 때 기본심리욕구의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공격적 행동 등 위험행동에 개입하게 된다고 주장하여(Williams, Hedberg, Cox, & Deci, 2000; Thgersen-Ntoumania et al., 2010) 기본심리욕구의 좌절이 공격성을 유발함을 뒷받침하였다.

한편, O'Neil(2008)은 성역할갈등의 맥락적 연구 패러다임에서 예측변인으로서 성역할갈등이 발달과업, 대인관계, 또래관계, 심리적 건강변인 등의 매개를 통해 개인내 우울, 품행 문제, 분노 문제 등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O'Neil(2008)은 성역할갈등이 발달적 과업의 직면 및 해결 과정, 대인간 상호작용 및 또래관계성 등의 매개를 통해 개인의 부적응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또래 간 상호작용 등 관계성의 충족이 청소년의 중요한 발달적 맥락을 구성하여 우울, 비행, 공격성 등의 부적응 문제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최희철 외, 2011; Hirschi, 1969). 따라서 O'Neil의 연구 패러다임은 사회 환경의 압력에 의해 발생하는 성역할갈등이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적·사회적 욕구인 관계성(기본심리욕구)을 통해 우울, 공격성 등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와 관련하여 Kilmartin(2007)은 역기능적 남성성을 내면화한 남성은 상실과 좌절 및 우울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고통을 약물사용이나 폭력, 공격성 등의 외적 해결책으로 표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O'Neil(2008)은 성역할갈등이 자신을 구속·억압하고 평가절하 및 욕구 좌절을 경험하게 하여 낮은 자존감, 우울, 분노 등을 유발하며 이것이 결국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폭력성을 행사하는 잠재력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우울이 공격성을 유발하는 기제에 대해 학자들은 우울 정서와 관련된 성마름(irritability)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조절 실패가 주위 사람과의 갈등 유발, 거부 문제 등을 가져와서(Petersen, Mullins, & Ridley-Johnson, 1985), 적대감이나 실망감과 분노를 증가시키고 결국 공격행동에 더욱 개입하게 한다고 보았다(Berkowitz, 1993). 청소년 폭력과 공격성에 대한 다변량 분석 연구(Ferguson, San Miguel, & Hartley, 2009)에서는 청소년 폭력과 공격성을 가장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이 또래 관계와 우울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우울이 공격성과 비행을 유발한다고도 보고되었다(임양화, 오경자, 1989; Avenevoli & Merikangas, 2006). 학자들은 청소년의 외현화된 문제 행동의 기저에는 가면성 우울이 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Chiles, Miller, & Cox, 1980; Malmquist, 1977), 특히 청소년기 우울은 성인의 우울과 달리 일반적 슬픔과 무기력함의 형태가 아닌 분노, 충동성, 공격성 등으로 표출된다고 보았다(최선윤, 2008).

이러한 결과들은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 즉 성역할갈등의 경험이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특히 관계성 욕구의 좌절을 초래하고, 이 때 발생하는 심리적 불만족이 우울을 야기하여(Diener & Emmons, 1984) 결국 직접적으로 관찰되는 형태인 공격성으로 표출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Good과 Mintz(1990)는 성역할갈등이 기본욕구를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끼친다고 제안하였으며, 국내에서도 남성성역할갈등과 우울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최희철, 김지현, 김병석, 2009; 최희철 외, 201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 모형을 확장하여 성역할갈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와 우울의 매개효과를 가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성역할갈등이 발달하는 시기인 청소년기의(Watts & Borders, 2005) 공격성 문제에 개입하는데 있어서, 심리발달적 측면 및 기본심리욕구의 관점에서 어떠한 부분이 충족되지 못하고 좌절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서 내면화된 성역할의 부정적인 측면 즉 성역할갈등으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의 확인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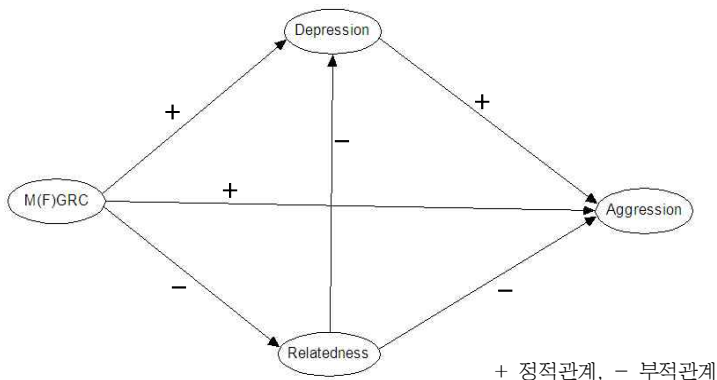
특히, 자기결정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실증적 연구에서는 자율성과 유능감, 관계성의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가 독립적으로 취급되었다(Ryan & Deci, 2007). 여러 선행연구에서 유능감은 자신

의 능력을 연마하고 확장시키는 만족을 경험하기 위한 욕구로서(Elliot & Thrash, 2002) 주로 학업성취와 관련된 상황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자율성은 공격성을 정확히 설명하지는 못하였고(Fuhrman & Holmbeck, 1995; Garber & Little, 2001), 자율성과 공격성 간에는 일관된 연구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Lamborn & Steinberg, 1993; Schmitz & Baer, 2001). 반면, 관계성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아영, 이명희, 2008) 관계성이 우울과 폭력, 비행, 공격성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조운오, 2009; Hofer & Busch, 2011; Hops, Davis, Alpert, & Longoria, 1997).

따라서 청소년의 성역할갈등과 기본심리욕구, 우울, 공격성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본심리욕구 중 특히 관계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성역할갈등이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에서 관계성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갈등을 독립변인으로, 관계성과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연구모형(그림 1)을 설정하였다. 특히, 성역할갈등은 성별로 서로 달라 남자청소년에게는 남성성역할갈등(Male Gender Role Conflict; MGRC), 여자청소년에게는 여성성역할갈등(Female Gender Role Conflict; FGRC)을 적용하고 남녀 청소년별 각각의 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모형에는 남녀별 초기 청소년 각각의 성역할갈등이 직접적으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우울을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성역할갈등이 관계성, 관계성과 우울을 매개로 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존재한다.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 공격성을 설명하는 구조모형을 연구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서울·경기에 위치한 초기 남자청소년 383명, 여자청소년 313명, 총 696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초기 남자청소년은 초등학교 6학년 172명(44.9%), 중학교 1학년 48명(12.5%), 중학교 2학년 138명(36.0%), 중학교 3학년 25명(6.5%)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초기 여자청소년은 초등학교 6학년 152명(48.6%), 중학교 1학년 16명(5.1%), 중학교 2학년 103명(33.0%), 중학교 3학년 42명(13.4%)으로 구성되었다.

2. 측정 도구

1) 초기 남자청소년 성역할갈등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하문선, 김지현(2012)이 개발 및 타당화한 초기 남자청소년 성역할갈등척도(Korean Male Gender Role Conflict Scale for young adolescent boys; K-MGRCS-Y)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Likert 6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6, 매우 그렇다)로 역채점 문항은 없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성성역할갈등이 높은 것으로 하였다. 총 2요인 중 힘·성취에 대한 욕구(NPA) 요인은 ‘힘이 세야 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등 5문항, 자기표현억제(RE) 요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 때때로 나에게 어렵다.’ 등 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전체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의 전체 *Cronbach's α*는 .79이며, 각 요인 별로 힘·성취에 대한 욕구(NPA)는 .77, 자기표현억제(RE)는 .69이었다.

2) 초기 여자청소년 성역할갈등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하문선, 김지현(2012)이 개발 및 타당화한 초기 여자청소년 성역할갈등척도(Korean Female Gender Role Conflict Scale for young adolescent girls; K-FGRCS-Y)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Likert 6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6,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고 역채점 문항은 없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성역할갈등이 높은 것으로 하였다. 총 3요인 중 신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FPU) 요인은 ‘뚱뚱하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 등 5문항, 성적희생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FV) 요인은 ‘밤길을 혼자 걷는 것이 두렵다.’ 등 4문항, 의존

성과 수동성(DP) 요인은 '무거운 것은 남자가 들어야 한다.' 등 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전체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의 전체 *Cronbach's α*는 .81이었으며, 각 요인별로는 신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FPU)이 .85, 성적희생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FV)은 .74, 의존성과 수동성(DP)은 .73이었다.

3) 기본심리욕구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사용된 기본심리욕구척도는 이명희와 김아영(2008)이 개발한 척도로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세 가지 하위요인, Likert 6점 척도(1, 전혀 아니다 ~ 6,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성은 '나는 내 자신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느낀다.' 등 6문항, 유능감은 '일상생활에서 나는 자주 남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한다.' 등 6문항, 관계성은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낸다.' 등 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전체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명희와 김아영(2008)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는 .90, 자율성이 .702, 유능감이 .750, 관계성이 .785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성의 한 하위요인 총 6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남학생 표집의 *Cronbach's α*는 전체 .82, 관계성이 .79이었으며, 여학생 표집의 *Cronbach's α*는 전체 .82, 관계성이 .79이었다.

4) 우울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사용된 우울척도는 Radloff(1977)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번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갑자기 눈물이 나왔다.' 등 총 20문항, 4점 Likert 척도(1, 전혀 없었다 ~ 4, 매일 있었다)로, 전경구 등(2001)이 보고한 *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남학생 표집에서 .89, 여학생 표집에서 .93이었다.

5) 초기 청소년 공격성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사용된 공격성척도는 한영경(2008)이 번안한 PCS를 하문선, 김지현(2012)이 타당화한 척도(Korean Peer Conflict Scale; K-PC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각 유형별로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재미있다.' 등 4문항,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은 '인기 있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을 한다.' 등 4문항,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은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을 다치게 한다.' 등 4문항,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은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을 내 집단에서 빼 버린다.' 등 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전체는 총 16문항,

4점 Likert 척도(0, 전혀 그렇지 않다 ~ 3, 확실히 그렇다)로 되어있다. *Cronbach's α* 는 전체 공격성이 .93이었고, 전체 외현적 공격성 .89, 전체 관계적 공격성 .90,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 .81,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 .81,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82,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81이었다.

3. 자료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PASW STATISTICS 18, AMOS 7.0을 사용하였다. 특히,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후 결측치를 대체하기 위해 MCAR(Missing completely at random)을 가정하고 Mean Imputation 방식을 사용하였다.

1) 정상성 검증과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이용하여 미지수를 추정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최대우도(ML) 추정방법으로, 이 방법은 자료가 정규분포를 보인다는 것을 가정한다. 본 연구 자료에 대한 정상성 분석 결과, 다변량 정상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Bootstrapping 방법을 채택하였다. 특히, 분석시 각 구인들을 측정하는 측정지표는 개개 문항들을 묶어 구성하였다. 각 척도의 개개 문항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하면 추정해야 할 미지수의 개수가 많이 늘어나 최대우도 추정방법의 조건인 다변량 정상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위 척도가 있는 성역할갈등과 공격성은 하위 척도를 측정변인으로 구성하였고, 하위척도가 없는 관계성과 우울은 문항점수들을 합한 문항꾸러미(item parcel)를 구성하였다 (Russel, Kahn, Spoth, & Altmaier, 1998).

2) 모형의 평가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네 가지 지수 즉 χ^2 값, *TLI*, *CFI*, *RMSEA*를 이용하였다. 또한 위계적 관계에 있는 경쟁 모형들 중 최종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χ^2 차이값($\Delta\chi^2$)과 자유도 차이값(Δdf)에 기초하여 이들을 비교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정상성 검증

1) 남자청소년

남자청소년 표집에 대한 자료가 최대우도 추정 방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한지 정상성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다변량 왜도값, 다변량 첨도값은 각각 2와 7미만이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다변량 첨도값(극단치 제거전: 87.74, 극단치 제거후: 62.26)은 3보다 커서 Mardia의 정상화된 다변량 첨도값의 기준에 크게 위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남자청소년 모형 검증에서는 Bootstrapping 방식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였다.

2) 여자청소년

여자청소년 표집에 대한 자료 역시, 다변량 왜도값, 다변량 첨도값은 각각 2와 7미만이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으나, 다변량 첨도값(극단치 제거전: 58.10, 극단치 제거후: 57.44)은 3보다 커서 Mardia의 정상화된 다변량 첨도값의 기준에 크게 위배되어 Bootstrapping 방식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였다.

2. 측정모형 검증

1) 남자청소년

남자청소년의 관찰변인과 잠재변인의 관계를 나타낸 측정모형 검증 결과, χ^2 (109, $N=371$) = 331.58, $p < .001$, $TLI = .905$, $CFI = .924$, $RMSEA = .074$ [90% $CI = (.065 - .084)$]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자료에 부합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여자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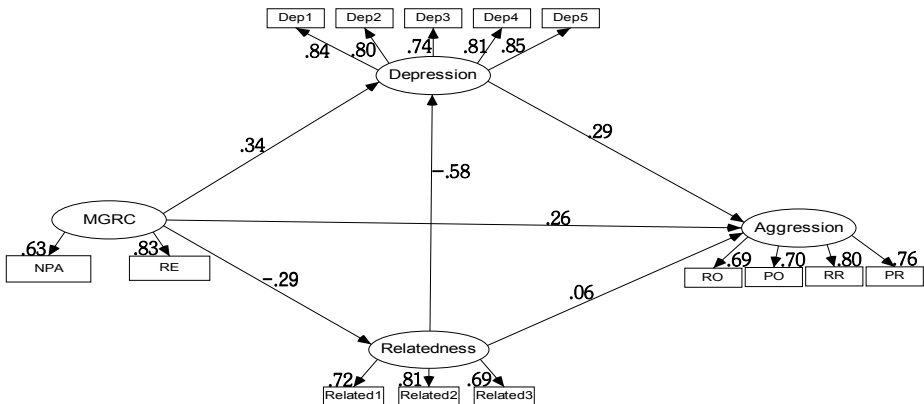
여자청소년의 관찰변인과 잠재변인의 관계를 나타낸 측정모형 검증 결과, χ^2 (125, $N=293$) = 288.85, $p < .001$, $TLI = .930$, $CFI = .943$, $RMSEA = .067$ [90% $CI = (.057 - .077)$]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자료에 부합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3. 구조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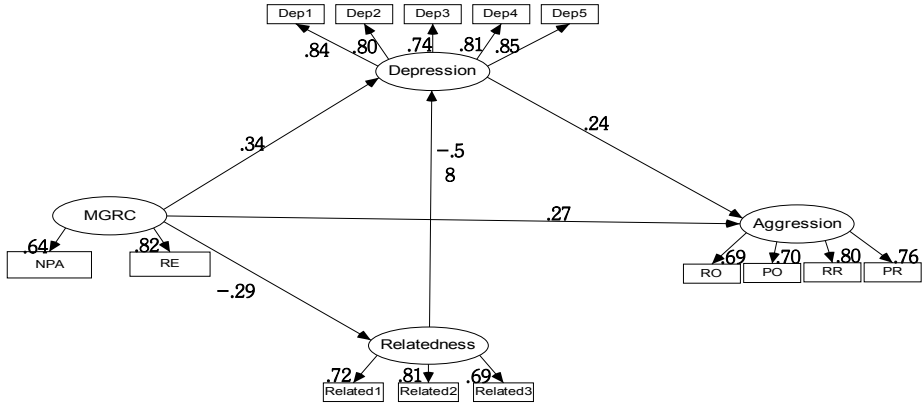
1) 남자청소년

(1) 모형 평가 및 최종모형의 경로추정치

첫째, 연구모형인 구조모형 1을 검증한 결과, $\chi^2(71, N=371) = 221.767, p < .001, TLI = .922, CFI = .939, RMSEA = .076$ [90% CI = (.065 - .087)]의 값을 보여,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조모형 1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 경로(Relatedness→Aggression)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그 경로를 삭제하고, 구조모형 2로 설정하였다. 셋째, 구조모형 2를 검증한 결과, $\chi^2(72, N=371) = 222.168, p < .001, TLI = .923, CFI = .939, RMSEA = .075$ [90% CI = (.064 - .086)]의 값을 보여,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구조모형 2가 구조모형 1에 비하여 적합도가 유의할 정도로 나빠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구조모형 1과 2의 χ^2 차이검증 결과, $\chi^2_{Difference}(1, N=371) = .401, p > .05$ 로 유의하지 않아, 더 간명한 구조모형 2가 자료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지수인 *TLI, CFI, RMSEA* 역시 변화가 없거나(*CFI*) 더 개선되었다(*TLI, RMSEA*). 따라서 구조모형 2를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다섯째, 최종모형의 각 경로 추정치를 확인한 결과, 모든 경로의 추정치가 유의하였고,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Shrout & Bolger, 2002). 구체적으로, 최종모형(그림 3)에서 초기 남자청소년의 성역할갈등은 관계성 욕구에 -.288, 우울에 .340, 공격성에 .266의 경로계수를 보였고, 관계성 욕구는 우울에 -.580, 우울은 공격성에 .244의 경로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기 남자청소년의 관계성 욕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남자청소년 구조모형 1(연구모형)



[그림 3] 남자청소년 구조모형 2(최종모형)

<표 1> 남자청소년 구조모형 검증 결과 비교

모형	χ^2	df	모형비교	$\Delta \chi^2(df)$	TLI	CFI	RMSEA (90% CI)
구조모형1 (연구모형)	221.767	71			.922	.939	.076(.065 - .087)
구조모형2 (최종모형)	222.168	72	1 vs 2	.401(1)	.923	.939	.075(.064 - .086)

주. ** $p < .01$, * $p < .05$

(2) 매개모형의 검증

매개효과가 검증되기 위해서는 각 잠재변인들 간 경로계수와 그에 따른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미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Baron & Kenny, 1986). 이를 위해 Shrout와 Bolger(2002) 등이 제안한 Bootstrapping 절차에 따라 원자료(N=371)에서 무선표집으로 생성된 10,000개의 Bootstrapping 자료 표본을 모수 추정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인(남자청소년 성역할갈등)이 종속변인(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변인을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 위해, 간접효과의 크기가 95% 신뢰구간에서 영가설이 설정한 0을 포함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성역할갈등에서 관계성을 거쳐 우울로 가는 경로, 성역할갈등에서 관계성과 우울을 거쳐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 관계성에서 우울을 거쳐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의 매개효과가 각각 95% 신뢰구간에서 영가설이 설정한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051 - .131, .022 - .073, -.266 - -.046). 따라서 남자청소년 성역할갈등과 공격성의 관계는 관계성과 우울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독립변인들의 공격성에 대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효과의 종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i>B</i> (<i>CI</i>)	β	<i>B</i> (<i>CI</i>)	β	<i>B</i> (<i>CI</i>)	β
MGRC	-	REL	-.095 (-.148 - -.056)	-.288	-.095 (-.148 - -.056)	-.288	-	-
MGRC	REL	DEP	.231 (.128 - .295)	.507	.155 (.060 - .213)	.340	.076 (.051 - .131)	.167
MGRC	REL DEP	AGG	.137 (.044 - .210)	.390	.094 (.011 - .189)	.266	.044 (.022 - .073)	.124
REL	-	DEP	-.798 (-1.008 - -.630)	-.580	-.798 (-1.008 - -.630)	-.580	-	-
REL	DEP	AGG	-.150 (-.266 - -.046)	-.141	-	-	-.150 (-.266 - -.046)	-.141
DEP	-	AGG	.188 (.058 - .311)	.244	.188 (.058 - .311)	.244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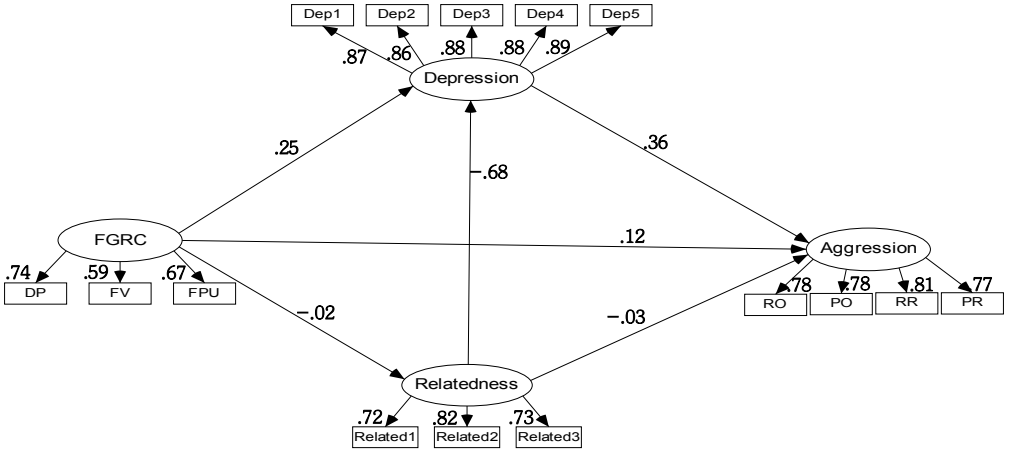
주. *N*=371. Bootstrapping 표집의 개수는 10,000개, *B*: 비표준화된 추정치임, β : 표준화된 추정치임.
 MGRC: 남자청소년 성역할갈등, REL: 관계성, DEP: 우울, AGG: 공격성

2) 여자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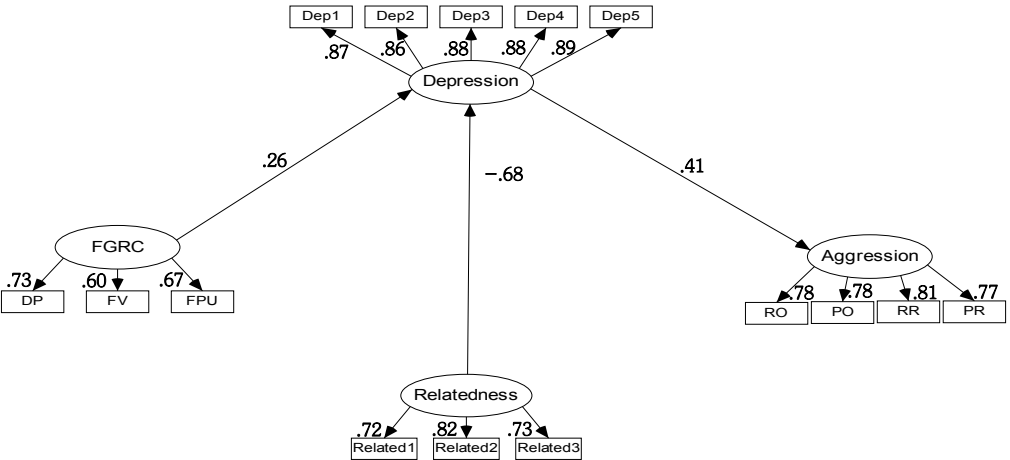
(1) 모형 평가 및 최종모형의 경로추정치

첫째, 연구모형인 구조모형 1을 검증한 결과, $\chi^2(84, N=293) = 167.608, p < .001, TLI = .959, CFI = .967, RMSEA = .058$ [95% *CI* = (.045 - .071)] 의 값을 보여,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조모형 1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 경로(FGRCS→Relatedness, FGRCS→Aggression, Relatedness→Aggression)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세 경로들을 삭제한 모형을 구조모형 2로 설정하였다. 셋째, 구조모형 2를 검증한 결과, $\chi^2(87, N=293) = 170.321, p < .001, TLI = .960, CFI = .967, RMSEA = .057$ [90% *CI* = (.044 - .070)] 의 값을 보여,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구조모형 2가 구조모형 1에 비하여 적합도가 유의할 정도로 나빠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구조모형 1과 2의 χ^2 차이검증 결과, $\chi^2_{Difference}(3, N=293) = 2.713, p > .05$ 로 유의하지 않아, 더 간명한 구조모형 2가 자료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지수인 *TLI*, *CFI*, *RMSEA* 역시 변화가 없거나(*CFI*) 더 개선되었다(*TLI*, *RMSEA*). 따라서 구조모형 2를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다섯째, 최종모형의 각 경로 추정치를 확인한 결과, 모든 경로의 추정치가 유의하였고,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Shrout & Bolger, 2002). 구체적으로, 최종모형(그림 5)에서 초기 여자청소년의 성역할갈등은 우울에 .257, 우울은

공격성에 .414, 관계성 욕구는 우울에 -.685의 경로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여자청소년 구조모형 1(연구모형)



[그림 5] 여자청소년 구조모형 2(최종모형)

<표 3> 여자청소년 구조모형 검증 결과 비교

모형	χ^2	df	모형비교	$\Delta \chi^2(df)$	TLI	CFI	RMSEA (90% CI)
구조모형1 (연구모형)	167.608	84			.959	.967	.058(.045 - .071)
구조모형2 (최종모형)	170.321	87	1 vs 2	2.713(3)	.960	.967	.057(.044 - .070)

주. ** $p < .01$, * $p < .05$

(2) 매개모형의 검증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 절차에 따라 원자료(N=293)에서 무선표집으로 생성된 10,000개의 Bootstrapping 자료 표본을 모수 추정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인(여자청소년 성역할갈등, 관계성)이 종속변인(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변인을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 위해, 간접효과의 크기가 95% 신뢰구간에서 영가설이 설정한 0을 포함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성역할갈등에서 우울을 거쳐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 관계성에서 우울을 거쳐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의 매개효과가 각각 95% 신뢰구간에서 영가설이 설정한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021 - .076, -.413 - -.206). 따라서 여자청소년의 우울은 성역할갈등과 공격성의 관계, 관계성과 공격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독립변인들의 공격성에 대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경로			효과의 종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i>B</i> (CI)	β	<i>B</i> (CI)	β	<i>B</i> (CI)	β
FGRC	-	DEP	.171 (.064 - .245)	.257	.171 (.064 - .245)	.257	-	-
FGRC	DEP	AGG	.046 (.021 - .076)	.106	-	-	.046 (.021 - .076)	.106
REL	-	DEP	-1.112 (-1.323 - -.868)	-.685	-1.112 (-1.323 - -.868)	-.685	-	-
REL	DEP	AGG	-.297 (-.413 - -.206)	-.283	-	-	-.297 (-.413 - -.206)	-.283
DEP	-	AGG	.267 (.195 - .368)	.414	.267 (.195 - .368)	.414	-	-

주. N=293. Bootstrapping 표집의 개수는 10,000개, *B*: 비표준화된 추정치임, β : 표준화된 추정치임.

FGRC: 여자청소년 성역할갈등, REL: 관계성, DEP: 우울, AGG: 공격성

IV. 논의

청소년기는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인 성역할갈등이 발달하는 시기로(Watts & Borders, 2005), 성역할갈등이 청소년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Blazina, Pisecco, & O'Neil, 2005) 보고되어 이와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 남녀 청소년의 성역할갈등과 관계성, 우울, 공격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초기 남녀 청소년의 성역할갈

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관계성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는 다변량 정상성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Bootstrapping 방식으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은 초기 남녀 청소년의 성역할갈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관계성, 우울의 매개효과에 대한 경로들이 포함되어 있다. 초기 남자청소년의 최종모형 검증결과, 성역할갈등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며, 우울을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고, 또 관계성과 우울을 매개로 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여자청소년의 최종모형 검증 결과는 성역할갈등이 우울을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며, 관계성이 우울을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종모형에서는 초기 남자청소년의 경우만, 성역할갈등이 높을수록 관계성이 낮아지고 우울이 높아져 결국 공격성을 표출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이 지지되었다. 이는 기본심리욕구 중 관계성이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김아영, 이명희, 2008) 우울, 폭력, 비행, 공격성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는(Hofer & Busch, 2011)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 남성성역할갈등(예. 감정 표현 억제)이 인간관계에서의 친밀감 결여, 불안을 예측한다는(Good & Wood, 1995; Mahalik, 1995) 보고와 일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청소년의 성역할갈등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적·사회적 욕구인 관계성 욕구를 좌절시키며, 내재화 문제인 우울을 유발하여 결국 직접적으로 관찰되는 공격성으로 표출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초기 여자청소년의 연구결과는, 남자청소년과는 달리 성역할갈등이 관계성에 대한 욕구를 좌절시킬 만큼 크게 작용하지 않고, 관계성 욕구 충족과는 상관없이 우울을 가져와 공격성으로 표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관계성과 공격성 간의 관계가 이중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연구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즉 여성의 높은 공격성은 타인으로부터의 거부 즉 낮은 관계성과 관련되는 측면과 다른 한편으로 여성이 효과적으로 공격성(예.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공격 대상을 제외한 타인의 지지가 필요하므로 높은 수준의 사회적 기술 즉 높은 관계성을 요구받는다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의 관계성과 공격성의 이중적 관계는 양자간 상관이 높게 나타나기 어려운 결과를 설명하며(Card, Stucky, Sawalani, & Little, 2008) 본 연구결과 즉, 여자청소년의 성역할갈등이 관계성과 상관없이 공격성으로 표출됨을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종모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초기 남자청소년의 경우, 성역할갈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관계성과 우울이 부분매개하며, 매개효과(.124)보다 직접효과(.266)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청소년의 성역할갈등은 긍정적 또래 관계에 대한 지지를 통해 우울감을 완화시킴으로써 공격성 표출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그 효과성이 크지 않을 수 있고, 관계성이나 우울 이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 혹은 직접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 수 있음을 함의한다. 따라서 남자청소년의 성역할갈등이 공격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견고한 성역할갈등 자체를 변화시키기 쉽지는 않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과 탐색 과정을 통하여 공격성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성역할갈등이 우울과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므로, 우울을 경험하게 하는 성역할갈등의 요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계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순히 여자청소년의 관계성이 공격성과 상관이 없다고 간과하여서는 안되며, 청소년을 상담할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의 높은 사회적 기술이 실제 공격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데 사용되고 있는지, 다른 한편으로 공격성에 따른 타인의 거부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각각의 경우에 따라 적절하게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초기 청소년의 성역할갈등이 공격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 방법이 남녀 청소년별로 차별화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공격성의 심리사회적 개입을 위해서는 성별의 차이를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Anderson, Deuser, & DeNeve, 1995; Geen, 2001)는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또한, 인간의 동기증진과 변화를 촉진하는 기저변인인 기본심리욕구 충족(Ryan, Lynch, Vansteenkiste, & Deci, 2011)이 초기 청소년의 성역할갈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어떠한 효과와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결과는 O'Neil(2008)이 주장한 성역할갈등의 맥락적 연구 패러다임 즉, 예측변인으로서의 성역할갈등이 다양한 발달과업, 대인관계, 심리적 건강변인을 통하여 개인내 우울, 품행, 분노 등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일부 경험적으로 증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에 이르는 초기 청소년으로 제한되었고, 중학생의 학년별 인원수에 대한 통제가 없었으며, 국내 일부 지역에서 편의적 표집법에 의해 선택되어졌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표집 범위의 다양화 및 학년 통제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의 모든 측정 변인은 자기 보고에 의한 자료로 청소년이 실제 타인에게 관찰되는 모습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울과 같은 내재화 행동은 타인이 관찰하기에 더욱 어렵고(Achenbach, McConaughy, & Howell, 1987), 공격성과 비행 경험은 부모나 교사가 모든 상황을 목격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청소년 자신이 적절한 환경하에서 행동문제 평가에 보다 솔직할 수 있다(Oetting & Beauvais, 1990)고 보고되었다. 셋째, 본 연구모형에서는 개인 내적 변인만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하였으나, 선행연구들의 검토를 통하여 가정·학교·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매개 변인들의 투입을 통하여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는 확대 연구 또한 향후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초기 남녀 청소년의 성역할갈등과 공격성의 관계를 기본심리욕구와 우울이 매개하

는지를 검증하여 성역할갈등과 우울의 관계를 구조화한 선행연구(최희철 외, 2011; Good & Mintz, 1990)를 확장하였다. 또한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성역할갈등 관련 연구들이 주로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초기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성역할갈등 관련 연구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청소년의 부적응 문제의 개입과 예방에 도움이 될 경험적 자료를 확보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앞으로 진행될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 등 다양한 부적응 변인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환경적 영향에 의해 형성된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성별·발달 단계별 성역할갈등 관련 요소들이 반영된 심리교육적 개입 및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은 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실제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지훈 (2005). 남, 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26(1), 1-14.
- 김동기, 홍세희 (2007).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 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생태학적 요인 검증. **조사연구**, 8(2), 21-42.
- 김아영, 이명희 (2008). 청소년의 심리적 욕구만족, 우울경향,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구조와 학교급간 차이. **교육심리연구**, 22(2), 423-441.
- 김영희 (1990). 한국 청소년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분석 연구. **경기대학교 학생생활연구**, 9, 27-46.
- 서미정 (2009). 방관자의 집단 특성에 따른 또래괴롭힘 참여 역할행동. **아동학회지**, 29(5), 79-96.
- 오인수 (2010). 괴롭힘을 목격한 주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공감과 공격성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3(1), 45-63.
- 윤리라 (1998). 공격성 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및 사회정보처리 특성: 반응적 공격성과 비 반응적 공격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 김아영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 이성식, 전신현 (2001). 가부장적 가정과 여자청소년의 비행(대립되는 두 가설의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5(5), 173-198.
- 임양화, 오경자 (1989). 우울한 아동의 귀인유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8(1), 69-76.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정익중 (2005). 성역할 고정관념과 청소년비행의 성별 차이. **한국청소년연구**, 16(1), 35-76.
- 조운오 (2009). 청소년 폭력행위 예측모델에 관한 연구 - 여자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6(11), 165-184.
- 최선윤 (2008). 부모갈등 부모-자녀 의사소통 청소년의 사회불안 및 우울간의 관계구조 분석. 경 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해림 (2005). 부모애착, 자동적 사고, 성역할정체감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7(3), 599-616.
- 최희철, 김지현, 김병석 (2009). 남성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기본욕구충족의 매개효과 검증: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학연구**, 10(2), 1229-1243.
- 최희철, 정민선, 장지영, 김지현 (2011). 남성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기본욕구충족의

- 매개효과 검증: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학연구**, 12(2), 559-576.
- 통계청 (2011). 아동·청소년 정책통계지표.
- 하문선, 김지현 (2012). 한국 초기 남자청소년 성역할갈등척도(K-MGRCS-Y)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3(3), 1337-1354.
- 하문선, 김지현 (2012). 한국 초기 여자청소년 성역할갈등척도(K-FGRCS-Y)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595-620.
- 하문선, 김지현 (2012). 한국 초기 청소년 공격성척도(K-PCS) 타당화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4(1), 71-101.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2011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 브리프**, (4), 1-7.
- 한영경 (2008).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요인.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Anderson, C. A., Deuser, W. E., & DeNeve, K. M. (1995). Hot temperatures, hostile affect, hostile cognition, and arousal: Tests of a general model of affective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5), 434-448.
- Aronson, R. S. (1980). Characteristics of action potentials of hypertrophied myocardium from rats with renal hypertension. *Circulation Research*, 47(3), 443-454.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pp. 255-276). Cambridge, MA:
- Avenevoli, S. & Merikangas, K. R. (2006). Implications of High-Risk Family Studies for Prevention of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1(6), 126-135.
- Averill, J. R. (1983). Studies on anger and aggression: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38(11), 1145-1160.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rkowitz, L. (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Academic.
- Blazina, C., Pisecco, S., & O'Neil, J. M. (2005). An Adaptation of the Gender Role Conflict Scale for Adolescents: Psychometric Issues and Correlates With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6(1), 39-45.
- Bongers, I. L., Koot, H. M., van der Ende, J., & Verhulst, F. C. (2004).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Externalizing Behavio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5(5), 1523-1537.
- Bowker, L, H. (1998). *Masculinities and violence*. Thousand Oaks, CA, US.

- Card, N. A., Stucky, B. D., Sawalani, G. M., & Little, T. D. (2008). Direct and indirect aggression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A meta analytic review of gender differences, intercorrelations, and relations to mal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9*(5), 1185-1229.
- Chiles, J. A, Miller, M. L, & Cox, G. B. (1980). Depression in an Adolescent Delinquent Population. *Arch Gen Psychiatry, 37*(10), 1179-1184.
- Crick, N. R., & Dodge, K. A. (1996).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echanism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7*, 993-1002.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An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Psychological Theory, 11*(4), 227-268.
- Diener, E. & Emmons, R. A. (1984).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5), 1105-1117.
- Dodge, K. A. (1991).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201-218*. Hillsdale, NJ, Englan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Pepler, Debra J. (Ed); Rubin, Kenneth H. (Ed).
- Dryfoos, J. (1989). Family planning clinics - a story of growth and conflict. *Plann Perspect, 20*(6), 282-287.
- Elliot, A. J. & Thrash, T. M. (2002). Approach-avoidance motivation in personality: Approach and avoidance temperaments and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5), 804-818.
- Fagot, B. I., Rodgers, C. S., & Leinbach, M. D. (2000). *Theories of gender*.
- Ferguson, C. J., San Miguel, C., & Hartley, R. C., (2009). A multivariate analysis of youth violence and aggression: The influence of family, peers, depression, and media violence. *Criminal Justice Rev, 6*, 904-908.
- Frodi, A., Macaulay, J. & Thome, P. R. (1977). Are women always less aggressive than men Review of experiment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4*(4), 634-660.
- Fuhrman, T., & Holmbeck, G. N. (1995). A contextual-moderator analysis of emotional autonomy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6*(3), 793-811.
- Garber, J. & Little, S. A. (2001). Emotional autonomy and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6*(4). 355-371.
- Geen, R. G. (2001). *Human aggression*, University Press Buckingham· Philadelphia. gender (pp. 510-556). Mahwah, NJ: Lawrence Erlbaum. gender role conflict. *The Journal of Men's*

Studies, 9, 55-68.

- Good, G. E., & Mintz, L. B. (1990). Gender role conflict and depression in college men: Evidence for compounded risk.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9(1), 17-21.
- Good, G. E., & Wood, P. K. (1995). Male gender role conflict, depression, and help seeking: Do college men face double jeopard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4(1), 70-75.
- Hagan, J., & Simpson, J. (1987). Class in the Household: A Power-Control Theory of Gender and Delinqu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4), 788-816.
- Heppner, P. P., & Heppner, M. J. (2008). The gender role conflict literature: Fruits of sustained commitment.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6, 455-461.
- Hirschi, T. (1969). *A control theory of delinquency*.: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 Hofer, J. & Busch, H. (2011). When the needs for affiliation and intimacy are frustrated: Envy and indirect aggression among German and Cameroonian adult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5(2), 219-228.
- Hops, H., Davis, B., Alpert, A., & Longoria, N. (1997). *Adolescent peer relations and depression symptomatology*.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Washington, DC.
- Karriker-Jaffe, K. J., Foshee, V. A., Ennett, S. T., & Suchindran, C. (2008).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During Adolescence: Sex Differences in Trajectories of Physical and Social Aggression Among Youth in Rural Area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8), 1227-1236.
- Kilmartin, C. T. (2007). *The masculine self (3rd ed)*. New York: Sloan Publishing.
- Kopper, B. A., & Epperson, D. L. (1996).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Relationships with gender, gender role socialization, depression, and mental health functio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2), 158-165.
- Lamborn, S. D., & Steinberg, L. (1993). Emotional Autonomy Redux: Revisiting Ryan and Lynch. *Child Development*, 64(2), 483-499.
- Maccoby, E. E., & Jacklin, C. N.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liforni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Macreary, D. R., Newcomb, M. D., & Sadava, S. W. (1999). The male role, alcohol use, and alcohol problems: A structural modeling examination in adult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1), 109-124.

- Mahalik, J. R. (1995). Cross-sectional study of gender role conflict examining college
- Mahalik, J. R., Locke, B. D., Ludlow, L. H., Diemer, M. A., Scott, R. P., Gottfried, M., & Freitas, G. (2003). Development of the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Inventory.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4*(1), 3-25.
- Malmquist, C. P. (1977). Childhood depression: A clinical and behavioral Perspective. In JG Schulterbrandt & A raskin(Eds.), *Depression in children: Diagnosis, treatment and conceptual models*(pp. 35-59). New York: Raven Press.
- Moller, A. C. & Deci, E. L. (2010). Interpersonal control, dehumanization, and violence: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Group Processes Intergroup Relations, 13*(1). 41-53.
- Neighbors, C., Lewis, M. A., Fossos, B. S., & Grossbard, J. R. (2007). *Motivation and risk behaviors: A self-determination perspective*. Nova Science Publish.
- Neighbors, C., Vietor, N. A., & Knee, C. R.(2002). A Motivational Model of Driving Anger and Aggression. *Pers Soc Psychol Bull March 2002, 28*(3), 324-335.
- O'Neil, J. M. (1981). Patterns of gender role conflict and strain: Sexism and fear of femininity in men's lives.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0*, 203-210.
- O'Neil, J. M. (2008). Summarising 25 years of research on men's gender role conflict using the gender role conflict scale: New research paradigms and clinical implica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6*, 358-445.
- Oetting, E. R. & Beauvais, F. (1990), Adolescent drug use: Findings of national and local survey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4), 385-394.
- Petersen, L., Mullins, L. L., & Ridley-Johnson, R. (1985). Childhood depression: Peer reactions to depression and life stres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3*, 597-609.
- Pleck, J. H. (1995). The gender role strain paradigm: An update. In R. R. Levant & W. S. Pollack(Eds.), *A new psychology of men* (pp. 11-32). New York: BasicBooks.
- Pulkkinen, L. (1996).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early adolescence as precursors to anti-and prosocial behaviour in young adults. *Aggressive Behaviour, 22*, 241-257.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oeser, R. W., & Eccles, J. S. (1998). Adolescents' Perceptions of Middle School: Relation to Longitudinal Changes in Academic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8*(1), 123-158.
- Russe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29.
- Ryan, R. M., & Deci, E. L. (2007). *Personal discussion at The Third International Self-Determination Theory Conference*. University of Toronto.
- Ryan, R. M., Lynch, M. F., Vansteenkiste, M., & Deci, E. L. (2011). Motivation and Autonomy in Counseling,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A Look at Theory and Practice 1 ψ 7.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9*(2), 193-260.
- Schmitz, M. F. & Baer, J. C. (2001). The Vicissitudes of Measurement: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Emotional Autonomy Scale. *Child Development, 72*(1), 207-219.
- Shover, N. & Norland, S. (1978). Sex roles and criminality: Science or conventional wisdom?. *Sex Roles, 4*(1), 111-125.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pence, J. T. (1993). Gender-related traits and gender ideology: Evidence for a multi-factorial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624-635.
- Thgersen-Ntoumanis, C., Ntoumanis, N., & Nikitarasb, N. (2010). Unhealthy weight control behaviours in adolescent girls: a process model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Psychology & Health, 25*(5), 535-550.
- Watts, R. H. & Borders, L. D. (2005). Boys' Perceptions of the Male Role: Understanding Gender Role Conflict in Adolescent Males, *Journal The Journal of Men's Studies, 13*(2), 267-280.
- Williams, G. C., Hedberg, V. A., Cox, E. M., & Deci, E. L. (2000). Extrinsic Life Goals and Health-Risk Behaviors in Adolesce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0*(8), 1756-1771.

* 논문접수 2013년 5월 2일 / 1차 심사 2013년 5월 27일 / 게재승인 2013년 6월 21일

* 하문선: 서울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상암초등학교에 재직 중이다.

* E-mail: sunnylo@sen.go.kr

* 김지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Univ. of Connecticut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mongsanga@hanmail.net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Conflict and Aggression mediated by Relatedness and Depression for Young Adolescents*

Ha, Moonsun**

Kim, Ji-H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gender role conflict, relatedness, depression and aggression for young adolescents. Specifically, we examined the effect of relatedness and depression as media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conflict and aggression.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about the model means that the stronger gender role conflict in boys can lead to less relatedness and more depression, and this phenomenon can cause aggression in only boys. On the other hand, the stronger gender role conflict can lead to more depression regardless of relatedness in girls, and this phenomenon may cause aggression in girls. This study makes it possible to obtain empirical data for intervention and prevention of youth maladjustment problems. It also suggests that there is the need for effective strategies about gender role conflict to reduce the aggression of adolescent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young adolescents, gender role conflict, relatedness, depression, aggression

* This study is extracted from the doctoral dissertation of corresponding author.

** Corresponding author, Ph.D., Hongik University

*** Professor, Hongik University

